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4월 29일 청년동맹 제10차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와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재룡 당중앙위원회 부장, 권영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청년동맹 제10차대회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사회주의

를 주체적청년운동사에 새로운 발전의 리정표를 세운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빛내어주시고 동맹강화를 위한 위대한 투쟁강령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행운을 받아안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존엄높은 조선로동당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열렬히 옹호하고

우리 국가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워주시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대회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특별한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청년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를 열렬히 옹호하고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애국청년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온 나라를 청년판으로 풀게 하며 미풍선구자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청년동맹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붉은 전위대로, 강철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제일기수가 되고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 수행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가는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데 참답게 이바지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기발을 투쟁의 기치로 높이 들고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장엄한 진군에서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 애국청년의 기개와 불굴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떨치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에서 조선청년의 슬기와 기상을 힘있게 떨쳐갈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혁명열의와 투쟁기개가 비상히 고조되고있는 속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당, 무력기관, 청소년교양관계부문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즈음하여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와 재중조선청년동맹에서 축기들을 삼가 드린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하였다.

1.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
2.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총화
3.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칠데 대하여
4.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
5. 청년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

3일동안 진행된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과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청년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되었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박철민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청년사업을 당과 국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업으로,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속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가 소집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청년동맹이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나날이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석하시어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며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동맹조직들에서 5대교양을 청년들을 열렬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기본내용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동맹조직강화의 뒷바람을 일으켜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을 조직성과 규율성, 단결력과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과 학생소년들을 늘 마음속에 두시고 친어버이사랑을 거둬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총결기간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위대한 투쟁강령을 실행하기 위한 총진군에서 조선로동당의 교대자, 후비대로서의 전투적위력을 높이 떨쳐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청년동맹앞에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초급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고 돌파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청년들이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전구마다에 용약 달려나가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가며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으며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칠데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고칠데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이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대회에서는 다섯째 의정 《청년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토의하였다.

이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0기 제1차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대표자들이 제기한 창발적이며 건설적인 의견들이 보충반영된 첫째 의정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기발을 수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내신 강령적서한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재룡 당중앙위원회 부장이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진군방향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청년들의 특출한 혁명적열정이 높이 발양되는 속에 진행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가 청년동맹사업의 혁신과 강화발전을 위한 의의있는 성과들을 달성한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약의 도전들을 과감히 뚫고 혁명을 비약적상승으로 이끄는 우리 당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당의 구상에 일치시키며 물불을 가림없이 돌진해나가는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제일가는 밀천이며 가장 큰 자랑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청년들의 강렬한 지향과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당중앙이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발전목표를 내세운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진군에서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떨치며 조선청년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

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구호와 청년동맹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천명하시었다.

조국의 수백만 아들딸들이 혁명선열들이 물려준 총성과 애국의 바통을 역세계 이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청년의 슬기와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칠것을 기대하시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이 어린 뜻깊은 서한의 구절구절은 대회참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적청년운동발전의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호모와 신뢰심을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울리었다.

위대한 당중앙이 안겨준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 맹세를 담은 구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합성이 장대를 진감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주악과 합창으로 끝났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제10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 결사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온 나라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총성의 대회로 주체의 청년운동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본사기자



청춘들을 빛내주는 위대한 나라

최근 공화국에서는 인민경제의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탄원하는 청년들에 대한 소식이 련일 전해져 만사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황해남도에서는 260여명의 청년들이 도안의 협동농장과 도청년동력대에, 함경북도에서는 1 000여명의 청년동맹일군들과 근로청년들, 대학졸업생, 고급중학교 졸업학생과 학생들이 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 최전선업소와 산골마을학교들에 탄원하였다.

이렇게 몇달동안에만도 승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중요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과 농촌으로 자진하여 달려나간 청년들은 무려 수천명을 헤아린다.

이것은 청춘의 희망과 꿈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바치는데서 생의 보람을 찾는 조선청년들속에서 단 찾아볼수 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청년들이 황금만능주의에 물젖어 정신도덕적불구자로 되어가고있는 사실을 매일같이 접할수 있다.

몇해전 유럽에서는 20대, 30대청년들이 특대형인신

매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사회의 경악을 자아냈다. 또 어느 한 나라에서는 10대의 처녀들을 꺾어내어 마약을 먹인 후 문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 범죄를 감행한자들은 모두 18살부터 26살까지의 청년들이었다. 국도의 인간중오와 변태가 판을 치는 일본에서는 청년들이 자기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우습하게 나타나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청년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각종 타락현상들과 범죄행위를 렇게 하자면 끝이 없다.

이와 대조를 이루며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진출하는 조선청년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운것인가.

오늘 인생에 다시없을 귀중한 청춘시절에 시대가 부르는 곳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

한 투쟁에서 청춘의 고귀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시대의 주인공들은 수없이 많다.

조국보위를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조국방선을 굳건히 지켜가는 군인들도,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로력적위훈을 새겨가는 주인공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다.

청년, 이 부름을 새겨보느라만 사람들은 누구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갖든 그들의 위훈을 새겨보게 된다.

한해치고 추운 날이 거의 절반이 넘는 극악한 자연조건에서 청년들격대원들은 어떻게 발전소를 일떠세웠는가.

보통의 의지로는 빈 밭구도 끌고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강추위속에서 백두정춘들은 땅크나 비행기로 발전설비들을 운반해달라고 손을 내민것이 아니라 함과와 정대, 곡괭이를 가지고 얼음길을 깔고 언 땅을 파헤치면서, 석비레를 마대로 메날라 길

에 부러면서 그길로 대형화물자동차와 련결대차로 이어진 산같은 수송대를 전진시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방대한 언덕쌓기를 단 몇달사이에 해제했다.

이렇듯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백두산영웅청년 1호, 2호, 3호발전소가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조국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벌어지는 교정들과 과학적인 무공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지난해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전투를 벌릴 때에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 총정의 로력적성물을 마련하기 위한 80일전투가 진행될 때에도 청년들은 자기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 시대의 선구자로 자랑될만한 공화국의 청년들속에는 외진 산골과 섬마을의 교단으로 웃으며 달려간 대학졸업생들도 있으며 영예군인의 영인

한 길동무가 되고 자식이 없는 늙은이의 친자식이 된 처녀, 총각들도 있다. 또 《처녀어머니》, 《총각아버지》로 불리우며 미덕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는 청년들도 있으며 최첨단과학기술의 앞장에서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해나가는 미더운 청년과학자들도 있다.

조국보위초소와 수천척 지하막장, 최첨단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교정들과 과학적인 무공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이렇듯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전투를 벌릴 때에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 총정의 로력적성물을 마련하기 위한 80일전투가 진행될 때에도 청년들은 자기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 시대의 선구자로 자랑될만한 공화국의 청년들속에는 외진 산골과 섬마을의 교단으로 웃으며 달려간 대학졸업생들도 있으며 영예군인의 영인

한 길동무가 되고 자식이 없는 늙은이의 친자식이 된 처녀, 총각들도 있다. 또 《처녀어머니》, 《총각아버지》로 불리우며 미덕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는 청년들도 있으며 최첨단과학기술의 앞장에서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해나가는 미더운 청년과학자들도 있다.

조국보위초소와 수천척 지하막장, 최첨단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교정들과 과학적인 무공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이렇듯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전투를 벌릴 때에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 총정의 로력적성물을 마련하기 위한 80일전투가 진행될 때에도 청년들은 자기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 시대의 선구자로 자랑될만한 공화국의 청년들속에는 외진 산골과 섬마을의 교단으로 웃으며 달려간 대학졸업생들도 있으며 영예군인의 영인

한 길동무가 되고 자식이 없는 늙은이의 친자식이 된 처녀, 총각들도 있다. 또 《처녀어머니》, 《총각아버지》로 불리우며 미덕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는 청년들도 있으며 최첨단과학기술의 앞장에서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해나가는 미더운 청년과학자들도 있다.

조국보위초소와 수천척 지하막장, 최첨단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교정들과 과학적인 무공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이렇듯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전투를 벌릴 때에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 총정의 로력적성물을 마련하기 위한 80일전투가 진행될 때에도 청년들은 자기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 시대의 선구자로 자랑될만한 공화국의 청년들속에는 외진 산골과 섬마을의 교단으로 웃으며 달려간 대학졸업생들도 있으며 영예군인의 영인

한 길동무가 되고 자식이 없는 늙은이의 친자식이 된 처녀, 총각들도 있다. 또 《처녀어머니》, 《총각아버지》로 불리우며 미덕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는 청년들도 있으며 최첨단과학기술의 앞장에서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해나가는 미더운 청년과학자들도 있다.

조국보위초소와 수천척 지하막장, 최첨단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교정들과 과학적인 무공무진한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이렇듯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전투를 벌릴 때에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 총정의 로력적성물을 마련하기 위한 80일전투가 진행될 때에도 청년들은 자기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 시대의 선구자로 자랑될만한 공화국의 청년들속에는 외진 산골과 섬마을의 교단으로 웃으며 달려간 대학졸업생들도 있으며 영예군인의 영인



축복받은 조선의 근로자들

5.1절은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이다. 5월의 따스한 봄볕은 온 나라가 정열의 창가마다에 스며들고 행복에 겨운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강산을 더욱 밝게 해주 고있다.

오늘 이 땅에 차넘치는 화열과 랑만은 나라의 주인이 되어 참된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근로자들의 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5.1절의 유례에서 알수 있듯이 원래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낡은 착취사회에서 오랜 기간 멸시의 대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이 땅의 근로자들도 지난날 봉건적억압과 식민지통치의 악정에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며 노예의 운명을 살아왔다.

그러던것이 나라가 해방되어 민족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되고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면서 세상의 밝은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오신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력사를 출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동지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긍지를 떨치면서 국가사회발전의 힘있게 추동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위대한 우리 인민을 내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행복담겨 위대한 인민의 길에 결사분투할 결심을 엄숙히 선포하셨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어제도 오늘도 위대한 인민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가는 분이 바로 경애하는 그이이다.

그이께서 위대한 인민의 길을 걸어가시며 이 땅의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배부신 사랑과 믿음은 그 얼마나 애만겨주시신 창조물, 제부들은 또 그 얼마나인가.

지난 10년간 인민은 매일, 매 시각 체험하며 절감하였다. 이 땅의 평범한 근로자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시며 끝없는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손길이 얼마나 따사롭고 은혜로운것인가.

지금도 주체101(2012)년 9월 창건거리살림집들에 입사한 평범한 근로자들의 가정들 방문하신 경애하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른다.

평범한 교원의 가정, 노동자의 가정, 신혼부부가 정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동지님께서 세 집이 마음에 드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고 생활하는데 불편한것은 없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비롯하여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친어머니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이날 집주인들로부터 살림살이하기에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을 위하여 실시되는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라고 꼭꼭 말씀하시었다.

이 나라의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가구비품까지 그 흔히 갖주어준 세 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고도 생활에서 불편한것이 없는가 알아보시러 내려오시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몸소 찾아오시어 사랑만을 베푸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을 보으며 공화국의 인민들은 또 한분의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리를 모신 크나큰 감격으로 가슴 설레었다.

어찌 이뿐이랴.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직포공들을 위하여 로동자합숙을 궁전같이 일떠세워주시고도 5.1절을 맞으며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로동자언회까지 차려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이다.

몇해전 5월 1일에는 어느 한

기계공장에 로동자들을 위해 새로 꾸러진 강성원을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어 키워주시고 자신께 넘겨주시는 우리 로동계급인민이 공장 로동계급을 위하여 공장구내에 쫓구단을 펴주고 싶다는 자신의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진정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이 땅우에는 이루어 헤아릴수 없이 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되었다.

지난해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가 연이어 겹쳐들었지만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동지의 불같은 헌신과 사랑의 조치들에 의하여 불과 수개월만에 시대적락후성과 재해의 흔적을 가시고 번듯한 새 집, 새 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강산에 차넘치게 되었다.

진정 모든 사색과 활동의 첫자리에 근로하는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세심한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이 땅우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기쁨과 행복이 날이 커가고 있는것이다.

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인 사들은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고는 《수십년간 지속되는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이 계속 실시되고있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다운 존엄을 빛내여가는 조선의 근로 자들은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조선은 진정한 근로인민의 세상이다.》고 격찬하고 있는것이다.

절세위인의 뜨거운 사랑속에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의 근로자들, 이들은 자애로운 아버기를 높이 모신 긍지와 자랑을 온 세상에 노래하며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진정한 근로자들의 명절로 빛내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해성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사회주의문화농촌을 일떠세워주시려고

주체63(1974)년 5월 어느날 황해남도 신천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집하신 농촌건설부문 일군회의회가 열리었다.

그전날 오곡리를 찾으시어 농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주택을 마련해주시고 구상을 무르익히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오곡리관리위원회장을 회의장 앞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곡리의 지형

도를 짚어주시며 마을의 위치와 살림집의 모양, 내부구조, 난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무엇이든지 다 주웠으니 1년동안에 오곡리를 문화적인 농촌으로 건설해보자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오곡리의 건설주는 내가 되겠소!》

대 대한 보고를 받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어 대단하다고,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 식이며 주체공업이라고, 이 사업에

참가한 성원들은 다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대동청년광산을 대동청년 영웅광산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 자리에 로동계급이 없애 그러는데 그들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자신께서 우리 식의 내화물생산공정을 보여주는 직관도에 직접 경의를 표시하셨다고 하시며 직관도를 향해 허리를 굽히시었다.

몸소 초대하신 특별손님

주체104(2015)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동지께서는 어느 한 과학연구기지를 찾으시었다.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우리 식의 제품연구 및 생산정형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누가 보진말한 장군님의 유공관철의 길, 과학탐구의 길을 걷고있는 애국자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그들의 애국적정함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나

류명호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나
이 말을 하기 힘들어
이 말을 하기 부끄러워
동네아이들이 아버지자랑 할 때면
나는 저 멀리 강가에 홀로 서있었다
나에게 아버지자랑 할게 없어서

무릎까지 입고 다니던 소학교 그 시절
아버지는 뭘 하시는데고 묻는 선생님물음에
우리 아버지는 승용차를 탄다고
우리 아버지는 이번엔 왕벌을 달았다고
학급동무들이 저저마다 아버지자랑 할 때면
나는 죄를 지은것처럼 머리를 수그렸다
나의 아버지는 그냥 로동자여서

눈물이 나도록 서글펐다
동네아이들의 아버지자랑에 쫓기위
해질녘까지 강가에 홀로 서있었고
학급동무들의 아버지자랑에 놀리워
때없이 머리숙이던 나여서
나는 제발 마음속으로 빌었어라
동무들 너는 아버지자랑 하지 말았으면
선생님 제발 아버지직업 묻지 말았으면

로동자는 땀나는 작업복 걸치고
언제 봐도 빛이 안 나는 사람 같아서
로동자와 로동자의 아들은
하나로 불리우는것만 같아
나는 때로 못사람들의 물음에

표시하는 의미에서 자신께서 우리 식의 내화물생산공정을 보여주는 직관도에 직접 경의를 표시하셨다고 하시며 직관도를 향해 허리를 굽히시었다.

본사기자

이날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이곳 과학자들을 염어주시고하시었다.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안겨주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첨단수준의 기술개발과 생산의 공업화실현에 적극 기여한 공로있는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10월 10일 경축행사에 특별손님으로 초대하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용서치 않더라 로동계급은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그때
수령님의 권위를 혈투는 종파분자들
12만대의 강철중산으로 내리쳤거니

탐내지 않더라 로동계급은
동천 한일도
고급한 생활의 총계를 오르는 사다리도
탐내는데가 있다면 그것은
수령님을 위한 생각으로 한생을 잊고
수령님을 위한 생을 가다듬는
그런 복된 삶이 부러워!

나는 자랑했어라
병사시절 명사수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도
김일성종합대학의 높은 연단에 올라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소리높이 뻘뻘했어라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박사가 되고
영웅이 되고
인민배우가 되는
그런 인간존엄의 높은 연단에서
나는 자랑했어라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라고

이 말을 하면 잠자던 열정도 쫓구치고
이 말을 하면 삶의 절음새도 변함이 없어
나는 늘 마음속으로 이 말을 외운다
위대한 수령님들 받들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성다할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2010년 창작)

본사기자 주일봉



유서깊은 평양을 유유히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에는 속셈이 있다.

해마다 온갖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는 봄이 오면 질어가는 신록으로 풍치수려해지는 속셈.

주제37(1948)년 5월 2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 속셈에서 력사적인 4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급인사들의 협의회를 마련하시었다.

유구한 력사의 증견자언양 거언히 서있는 아름드리버드나무의 그늘 밑에 퍼놓은 민족고유의 정서를 자아내는 듯 자라리우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자리를 같이하였었다.

백두산발을 주름잡으시며 《동방의 맹주》라고 하시며 부러진 삼도왜적을 취락력락하시니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명을 안아오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을 몸가짜이 모시고 둘러앉은 남조선대표들의

속셈은 길이 전하리

감격과 기쁨은 그지없었지만 그들은 좀처럼 어려움과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있었다.

남조선대표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왜놈들이 무서워했지 하나의 민족, 같은 동포들이야 왜 어렵겠는가고 하시며 우리 더운데 웃옷을 벗고 담배도 피우면서 격식없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며 손수 대표들에게 담배도 권하시니 불도 불어주시었다.

한없이 소탈하시고 겸허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인품에 끝난 남조선대표들은 순식간에 마음이 풀려 수령님 가까이 서로 다가앉아 정을 나누었으며 그리하여 한가지 평과 같은 단란한 분위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개괄하신 후 김구, 김규

식 등 남조선대표들의 소망과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명철한 해답을 주시면서 당면한 활동방향과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력을 보여주셨었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정세의 흐름을 환히 꿰뚫어보시면서 뚜렷한 방향과 모습을 펼쳐가시는 그이를 우리러며 남조선대표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었다.

봄날의 따스한 해볕속에 달아오른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로 이어져 함의에 도달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국통일방략에 대하여 명백히 강조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주요한 결론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의 남조선영구침착기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전민족투쟁을 벌릴데 대한 문제,

망국적인 《단선단정》책동에 대처하여 북조선에서는 직접적거로, 남조선에서는 비합법적인 간접적거의 방법으로 전조선적인 최고립법기관과 중앙정부를 세출데 대한 문제를 그리고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주의 주장, 리해관계에 앞서 민족 앞에 단합된 분렬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타개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구국통일의 기치밑에 합작단결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 곁고있는 민족적관심과 통일구국, 반미구국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너그럽게 혼연히 합작단결하는것을 공산주의자들의 의무로, 같은 피줄을 타

고난 조선사람으로서의 의리로 여기고있다고 뜨거운 민족애의 정이 넘치는 교시를 하시었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미소어린 눈길로 남조선대표들을 둘러보시다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한 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정경과 신앙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손잡을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

이날 북과 남의 대표들은 절세의 위인께서 밝혀주시민족대단합의 철리에 심취되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애국의 한길에 자신들을 다 바칠 각오를 다지였다.

아버지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헤아릴수 없이 넓은 도량, 만민을 뜨겁게 품어안는 포용력이 응축된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경륜을 받아안으며 남조선의 인사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과 편견, 오해에 사로잡혀 살아온 지난날을 깊이 후회하면서 련공합작, 련북통일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둘이켜보면 조국광복회를 창건한 동강의 5월은 조국해방을 위한 민족통일전선의 시원이 마련된 날이라면 속셈의 봄날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화원이 펼쳐진 력사의 날이었다.

이날이 있어 우리 겨레는 외세에 의해 들로 갈라져 분렬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민족의 태양을 우리러며 통일의 그날을 위해 거족적인 투쟁의 길을 힘차게 걸어올수 있었었다.

뜻깊은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급인사들의 협의회가 있었던 속셈은 70여년이 지난 오늘도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위위에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애국정결과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통일전선탑

통일전선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과 민족대단결리념, 통일전선운동사의 위대한 경륜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탑이다.

주제79(1990)년 8월 10일 속셈에 세워졌다.

탑은 탑신과 그밑의 비문판으로 되어있으며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되었다는것을 상징하여 56개의 화강석을 다듬어 세웠다. 탑의 높이는 13.5m이며 질량은 550t이다.

탑신의 앞면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로 된 《통일전선탑》이라는 글자가 부각되어있다. 옷부분에는 속셈협의회가 있은지 42돌이 되는 해에 탑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42송이의 목란꽃을 새겼다. 탑신의 뒤면에는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56개 정당, 사회단체들의 이름을 새겨넣었다.

탑의 앞면비문판에는 4월남북련석회의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모셔져있다. 뒤면비문판에는 속셈협의회에 참가하였던 대표들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최광혁

지금으로부터 49년전인 1972년 5월 3일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불멸할 뜻깊은 날로 기록되어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측 대표를 만나주시었다.

깊은 밤 남조선측 대표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나는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하고,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오래동안 갈라져있던 같은 동포끼리 이처럼 만나고보니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하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자리도 권하시니 담배도 피우라고 하시었다.

지난날의 죄행은 일체 불문에 불이시고 늦게나마 통일대화에 나선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아량과 포용력에 남조선측 대표는 감동을 금치 못하였었다.

잠시후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절박성에 대하여 언급하시니 마디마디에 뜻을 담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확고 세워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을 해나가는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었다.

이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기초로 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고 언급하시었다.

남조선측 대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찬성을 표시하였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조항별로 하나하나 꼽아가시며 그 본질적 내용과 정당성을 사리정연하

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한조항한조항 설명하시니 때마다 남조선측 대표는 《웁은 말씀입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하였었다.

남조선측 대표가 조국통일 3대원칙에 동의한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원칙의 조항들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는 벌써 중요한 공통점을 찾았다. 외세에 의하여 통일하지 말자, 싸움

선측 대표와의 담화를 마치시면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찬성한다니 이를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여 전체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이 알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강조하시었다.

정중 이념은 하나의 언어와 한피줄을 타고난 조선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서로 심금을 터놓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통일조국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되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마련한 의의깊은 날이었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두달후인 1972년 7월 4일 전체조선인민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평양과 서울에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골자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나라의 분렬이후 처음으로 되는 북남공동성명의 발표되는 것은 겨레의 가슴가슴을 감격과 환희로 뚫어버리게 하였을 세계가 총각과 경리의 도가니에 잠겨있었다.

남조선의 신문들은 이날의 감격을 8.15해방에 비길만큼 높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7.4성명은 새 민족사의 서장》, 《자주통일의 거로》라고 대서특필하였었다.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사는 해외동포들도 커다란 환희와 열기로 들끓었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과 공정한 사회여론은 한결같이 7.4공동성명을 열렬히 지지 환영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념원과 불면불휴의 노력의 결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가장 빛나는 승리》라고 격찬하였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오늘날도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 통일원칙으로 빛나고있다.

속셈협의회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앞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시원한 강가에 나가서 휴식도 하고 강기도 들으시라고 하시면서 사이강으로 나가시었다.

양복을 벗으시고 강물에 성품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몸소 반두채를 잡으시고 고기잡이를 하시며 수원들에게 고기잡이요리를 가르쳐주시기도 하시었다.

반두를 들 때마다 붓어와 쏘가리는 물론 송어와 잉어도 걸러들군 하였는데 그이께서는 그 고기들로 어죽을 쑤라고 이르시었다. 그러시고는 시원스럽게 해염을 치시어 사이강구에서 대동강으로 나가시었다.

정력에 넘쳐나는 그이의 젊고 건강하신 모습, 우러러면 우러러수록 민족의 창창한 앞날이 그대로 내다보이고 통일의 대문도 열리게 되리라는 확신과 기대로 가슴

나는 지금 속셈혁명사적지의 한구루 버드나무앞에 조용히 서있다.

에로부터 《류경》이라 불리우는 평양에는 버드나무가 많지만 이처럼 깊은 사연을 안고있는 버드나무는 없을것이다.

신록이 질어가는 5월의 봄바람에 흐느적이는 푸른 잎새들과 굵직한 가지들을 바라보노라니 문득 세월의 눈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150년의 돌기를 세웠다는 이 버드나무가 어쩌면 이렇듯 푸르심할까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나는 버드나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와-와 하는 설레임소리는 마치 못 있을 그날의 사연을 속삭여주는것만 같았다.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인 주제37(1948)년 5월 2일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여기 속셈, 바로 이 버드나무의 그늘밑에서 력사적인 4월남

한없이 소탈하신분

벽차오르게 하는 그 모습을 누구인들 감동없이 비울수 있었으랴.

이때 원두막에서는 남조선에서 13정당협의회와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의 공동의 장으로서 북남협상과세력을 함께 주도해온 홍명희선생과 조소양선생이 장기를 두고있었고 조완구, 최동오, 백남운, 엄정섭선생들은 결에서 훈수를 들고있었다.

그러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립합전의 찬 강물에 들어가시어 친필을 하시고 수영을 하시는데를 보자 경탄을 금치 못하였었다.

이전 화성의속 속장이었던 최동오선생은 22년만에 장군님께서 수영을 하시는데 모습을 다시 뵈게 된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화성의속에 다니

실 때 수영범이 출중하신것은 알고있었지만 민족의 령도자로 숭앙받고계시는 지금도 저렇게 소탈하게 수영을 하시실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하였었다.

그러자 조소양선생은 《김일성장군님은 결코 북조선민들의 령도자이거나 공산주의자들만의 령도자가 아니시오. 남북조선은 민족과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공동으로 다 함께 추앙하는 최고령도자이시오. ...》라고 경모의 정을 토로하였었다.

그들은 장기를 두다말고 어느덧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본사기자 김순남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태양같은 미소가 가슴에 안겨온다. 그리고 그처럼 겸허하시고 소탈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인품에 끝없이 매혹되어 그이를 가운데 모시고 발달형으로 빙 둘러앉아 허심탄회하고 스스럼없는 이야기를

피갈피를 더듬어갈수록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바치고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이 가슴 뜨겁게 어려온다.

민족의 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해 북과 남이

너는 마디굵은 줄기들과 푸르른 잎새마디에 민족대단결을 위해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이 담고있는것이리라. 너의 그 푸르름은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 념원을 한평생 받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로고와 수령님들의 조국통일훈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정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더욱더 싱싱한것이리라.

그래서 온 나라 인민들너를 보며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헌신의 자욱을 뜨겁게 되새겨보는것 아니겠는가.

그렇다. 민족의 단합을 위해 기술이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대에 길이길이 전해가려는 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간직하고 버드나무는 오늘날도 쾌히도 푸르리 설레이리라.

유금주

겨레에게 안겨주시는 불멸의 통일원칙

수필 푸른 버드나무앞에서

이한 남조선의 우익과 좌익, 중간세력의 지도급인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협의회를 진행하시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련석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과 공동성명에 반영된 구국령실현을 위해 남조선에 들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해나가겠는지 의논해보자고 하시며 모두 더운데 웃옷도 벗고 담배도 피우면서 격식없이 이야기하자고

나누었다는 김구와 김규식, 홍명희, 백남운, 조소양, 엄정섭, 조완구, 최동오, 김중항, 정진석 등 대표들의 흥분된 모습들도 보이는듯하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력사의 그날을 평생토록 잊지 못하시어 여기 속셈을 찾고 또 찾으시었고 사연깊은 이 버드나무를 바라보시며 속셈협의회와 관련한 감회깊은 추억의 교시도 남기시었다. 속셈에 새겨진 추억의 갈

공동으로 발표된 7.4공동성명과 1990년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애국적이며 거족적인 통일운동련합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의 결성...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시기 위해 한평생 쌓으신 업적을 하늘에 닿고 만나주시고 정을 나누신 동포들은 그 수를 헤아릴수 없다. 나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다시금 버드나무를 바라보았다.

《주권없이 평화도 없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서울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온라인형식으로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한미동맹강화조가 유지되고 8월군사훈련강행 등 적대행위가 지속되면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판문점 선언리행의 실패원인이 미국의 방해와 그에 얽매인 당국의 처사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판문점선언리행이 좌절된 지난 3년은 주권없이 평화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다.》고 토론했다.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선언이 리행되지 않는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통일의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 단결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연합훈련과 모든 대북적대 정책중단을 촉구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이날 공동결의문을 통해 《자국의 폐련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합의도 어떤한대 대북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의 폐련정책은 겨레의 자주권과 이 땅의 평화를 훼손하는 근본결립됨》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단호히 맞서나가자.》,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남북공동선언들을 반드시 실현하자.》, 《미국의 내정간섭, 민족분열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 등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적대행위를 중단해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판계를 개선하자.》고 호소하였다.

서울의 평화문화장에서는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넘게 분단단체 언젠든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에게 분단체제해체와 평전체제구축은 민족적명분》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남북관계개선과 협력을 미국의 허락없이 못하겠다고 하고있어 참담하다는 심정을 피력하였다.

이날 광주의 종교단체와 노동단체도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14개 종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남북관계와 한반도상황은 4.27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발목을 잡힌채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한 우리 정부의 의지부족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며 평화번영의 봄으로 돌아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더는 적대와 중오를 대물림할수 없다.》, 《오늘 평화선언을 시작으로 상생과 협력, 평화와 번영, 통일된 한반도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종교인들이 노력할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민주로총 광주본부도 이날 《한미군사연습중단선언 등 적극적으로 남북합의리행을 위한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진원

손바닥으로 해빛을 가리우려는 어리석은 망동

최근 《연합뉴스》, 《시사저널》, 《서울신문》을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이 《김일성주석 회고록, 원전대로 출간》, 《북 김일성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 등의 제목으로 절세위인의 항일무장투쟁사가 담겨져 있는 회고록이 출간되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는데 대해 널리 보도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회고록은 출판되자마자 800여개의 출판사들이 가입되어있는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 남조선의 주요책방들과 인터넷서점에서 보급되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이 회고록의 반입과 출판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복닥소동을

피워내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의 도서를 반입하려면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다. 사전협의의 절차를 하거나 반입승인을 받은적이 없다. 조사하고 취할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할것이라고 떠들고있는가 하면 법조계와 보수언론들도 《보안법위반》을 떠들며 회고록을 다시 거두어들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악담질을 해대고있다.

동족적대외식에 저들대로 짜든자들의 어처구니없는 광증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일찍부터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안고있고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해방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따르고 흠모하여왔다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항일혁명투쟁사가 집대성되어있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절세위인의 영원불멸할 업적과 고귀한 생애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의욕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한 주민이 미국에서 회고록을 구입하여 들어온 사실과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쓰게 한 사실 등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러한 흐름속에 남조선에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된것은 민족의 어버이를 끝없이 흠모하며 정의와

진리를 따르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지향이고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회고록은 원문 그대로이다.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출판된 회고록을 능가하며 소개할수 있게 되어 기쁘다. 회고록출판이 민족의 고귀한 것을 일깨우고 남북화해의 계기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었다고 한다.

사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과 보수매당이 《보안법위반》과 그 무효 《리직률》을 운운하며 회고록의 출판과 보급을 악랄하게 반대해나서고있는것

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언론탄압만행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종교계만이 성행하던 중세기도 아니고 남조선에서 군사파쇼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도 아니다.

하물며 오늘의 정보산업시대에 구시대적 낡은 대결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진리찾기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 해야 할것이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울수는 없는 법이다.

력사의 메를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정의와 진리를 따르려는 남조선민심의 지향은 절대로 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남조선에서 보충선거이후 《국민의힘》이 쑥대우에 오른 민중이처럼 기고민장하여 제멋대로 놀아내고있다고 한다.

민심의 분노가 두려워 감히 입에 올리지조차 꺼려하던 이전 당국자들에게 대한 《사면》을 거둬들이고 내내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지난 4월 20일 립시 《국회》에서 《국민의힘》소속의 한 의원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 《정여청에 벌금과 추징금이 과다하다.》고 떠들다 못해 《사면》문제를 들고나왔다고 한다.

이에 뒤질세라 《국민의힘》의 중진의원이라는자들도 저마다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사면》은 빠른수록 좋다고 목청을 높이고있고 하니 《국민의힘》것들이 단단히 환장을 한것 같다.

까마귀 백번을 목욕해도

민심의 저주를 받는 《사면》라령

백포가 될수 없다는 속담대로이다.

보충선거를 앞두고 이전 당국자들의 죄과에 대해 《사죄》한다 어쩐다 너스레를 떨더니 그것이 다 선거지표를 얻기 위한 너털하고 흥취한 연극에 불과한것이었다는것을 그들스스로가 드러내보여주고있는것이다.

리명박과 박근혜가 과연 어떤자들인가.

저저마다 《경제전문가》, 《준비된 너성대통령》을 요란히 광고하면서 민심을 기만하여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서는 독선과 독단, 무능과 악정으로 남조선정체를 망치고 민생을 진창속에 구겨박았으며 외세의존과 동족대결로 부남관계를 완전파탄시킨 주범, 흉악범들이

반인민적악정과 매국배족의 못된짓만 골라서 한 그런자들에게 《탄핵》이나 쇠고랑 같은것은 치릴처럼 아무도 가벼운 형에 불과한것이다.

그런자들의 《찾바지》노릇을 한 《국민의힘》것들이 천백번 사죄를 하고 력사의 뒤꽂기에 틀어박혀있어도 모르겠는데 또다시 《탄핵부정》과 《사면론》을 운운하고있으니 조물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렁이고 극악한 도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리명박, 박근혜는 재판받고 유죄를 선고받은자들이다.》, 《구제불능의 《국민의힘》은 《도로리명박근혜당》이 되고있다.》, 《박근혜나 오죽 리성을 잃나?》, 《사과

하라》 등 각계층의 분노를 연이어 보도하고있었는가.

《국민의힘》내부에서도 《탄핵대통령》을 배출한것이 반성하는것이 《책임정치》이다. 중진의원들의 행위를 당이 다시금 《도로리명박근혜당》으로 되고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있다고 한다.

언론들과 정치전문가들은 기만적악인 《혁신》과 《쇄신》, 《사죄와 반성》의 허울마저 벗어던진 《국민의힘》의 《사면론》에 대해 이것은 사실상 《탄핵부정》을 내든것이나 같다. 보지 않아도 사회 각계층에는 광주를 피마디에 잠근 전두환군부세력들과 같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질것이다. 《국민의힘》이 《도로리명박근혜당》으로 돌아간

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고 평하였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사면론》은 독재 《정권》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자들의 가련한 몸부림으로 봐야 할것이다.

인물만으로 골짜기를 잃는 자들이 《유신》독재와 그 후예의 후광으로 지지세력을 다 끌어모아보자는 어리석은 총책이고 《사면론》을 여론화하여 기만적인 《혁신》, 《쇄신》을음으로 계개놓았던 《태극기부대》, 평남의 팔룡부대 등을 다시 규합해보자는 잔꾀에 불과한것이다.

궁극에 가서는 권력을 잡고 《유신》독재, 파쇼독재를 부활시켜보자는데 그 중심이 있다.

《과거회귀당》, 《구제불능의 《국민의힘》이 《도로리명박근혜당》이 되었다.》는 남조선민심의 평이 백번 옳은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세력권 확장을 위해 날뛰는 시정배 무리들

남조선에서 보충선거이후 통합문제를 둘러싼 보수야당들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보수세력내부가 복잡해지고있다고 한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장명을 부지하고 권력야욕을 실현하는데만 피눈이 되어 날뛰는 보수패거리들의 너털하고 가련한 몸부림을 지켜보며 남조선 각계는 환멸을 금치 못하고있다.

도권장악을 위해 밤낮 싸움질만 벌여온것도 물론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하되 《국민의당》 대표의 개별인당이나 《국민의당》이 통제로 흡수될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

《국민의힘》 당대표인한 대평과는 합당할 의사가 없는지 《국민의당》이 확인해 서 담이 오면 될것이다. 우리는 찬성한다고 했으니 저쪽 결과에 따르는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에 공을 넘겼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합당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추후에는 《중도》, 《실용》 등의 방향성이 있어야 하고 혁신과 공정, 개혁이 전제로 되는 합당이어야 한다는 조건부찬성을 제

기하면서 합당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립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흡수통합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국민의힘》의 위상정당이 아니라고 뻔치고있다고 한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 《연합뉴스》는 《바람빠지지는 않겠지만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 확인해 서 담이 오면 될것이다. 우리는 찬성한다고 했으니 저쪽 결과에 따르는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에 공을 넘겼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합당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추후에는 《중도》, 《실용》 등의 방향성이 있어야 하고 혁신과 공정, 개혁이 전제로 되는 합당이어야 한다는 조건부찬성을 제

않으려면 저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로골적인 회유에 나서고있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의 정계에서 전 《국회》의원 금대섭이 윤석열을 끌어들이 새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떠들고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보수단체가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윤석열을 둘러싼 보수세력들의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지금 정치권은 금대섭 전 의원과 김종인, 윤석열이 함께 하는 제3인당이 만들어질지 주목하고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사이의 합당론자가 진행되고있지만 리해관계가 얽히면서 속도가 붙지 않고있다.

이런 상황에 금대섭 전 의원의 원발 신당창당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야권재편구도는 더욱 복잡해지고있다.》고 전하였다.

아무리한 리명적공통성도 없는 시정배들이 권력에 군침을 흘리며 세력권쟁탈에 눈이 빨개 돌아치고있어 보수세력은 통합이 아니라 사분오열되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지금 인류는 《비루스와의 전쟁》이라는 힘겨운 재난을 겪고있다.

인류가 이룩한 문명과 과학의 힘을 시험이라도 하듯 《COVID-19》는 확대와 변이를 거듭하면서 초저렴수구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있다.

그런 속에 인류는 뜻밖에도 또 하나의 재앙을 눈앞에 두고있다. 일본이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할것을 결정하였기때문이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는 하루 140여t의 방사능오염수가 생겨나 지금까지 그 량은 120여만t에 달한다고 한다.

그 방사능오염수를 일본이 태평양에 마구 버렸다고 하는것이다.

매년 부터 약 30년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어간에는 조선반도수역이, 몇년어간에는 태평양전역이 방사능에 오염될것이라고 한다.

말로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정제》했다고는 하지만 과학은 일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삼중수소 하나만 놓고보아도 물속에 섞여있으면 물리, 화학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한다. 물분자에 비

해 크기가 너무 작아 물리적으로 거르기가 어렵고 물과 화학성질이 같아 화학적으로 분리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후쿠시마오염수자체에 포함된 삼중수소 방사능은 약 860조Bq이라고 한다.

어느 한 나라의 해양생물학자는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삼중수소와 함께 탄소-14, 스트론튬-90 등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있고, 탄소-14는 반감기가 약 5730년에 이르러 해양생태계에 유전적장애 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인민거리》라고 설명하였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를 운영 하는 도쿄전력회사는 2018년과 2020년 두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처리된 오염수의 80%에서 인체에 해를 주는 세슘-137, 요오드-131, 스트론튬-90 등 핵종들이 기준치이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지진 원인은 2020년 당국이 다핵종제거설비 리용하여 처리하였다는 오염수에서 세슘은 100배, 스트론튬-90은 2만배이상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폭로한바 있다.

바다생태계의 파괴는 그대로 인류에게 재앙으로 들쭉 위치게 되는것이다.

일본의 《야사히신봉》은 올해 4월초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1kg 당 270Bq의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것은 허용도보다 3배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2월 말 후쿠시마현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에서도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바 있다고 한다.

그러한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리유가 더욱 격렬을 자아내게 한다. 올해 여름이 되면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가 더는 없기때문이라고 한다. 또 방사능오염수

를 물에 풀어 희석시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떠벌인다.

탱크를 짓는데 드는 자금과 노력이 아까워서이다.

물에 희석시킨다고 엄청난 방사능이 없어지는것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한것이다.

과연 심나라 정치난쟁이, 《경제동물》다운 속통이고 심보가 아닐수 없다.

그런 전 인류의 재부이고 삶의 리적인 태평양을 일본 하나의 오염물처리장으로 생각하는가.

일본당국자들이야말로 레일이 어떻게 되든 오일만 잘 살린 된다는, 인류의 미래가 죽든살든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황금만능》, 극단한 리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일본은 인류사상 첫 번째탄핵을 겪은 나라이다.

방사능위험의 심각성을 제일 잘 안다고도 할수 있는 일본의 그러한 결정은 전 인류에게 방사능판란을 들쭉우겠다는것이다.

하기에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오염수방출은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결정》, 인류와 미래에 대한 방사능테러로 락인한것이다.

가장 저질스러운 인물들이 모여 흉악한 음모만 생각해 내는것이 일본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태평양에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은 인류와의 전쟁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과거에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씻을수 없는 죄를 저지른 일본의 범죄적인 근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태평양을 방사능에 심히 오염된 죽음의 대양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범죄만행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더욱 표면화되는 내부갈등

보수통합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는 내부갈등이 더욱 표면화되었다고 한다.

《국민의힘》내부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보수야권이 모아야 한다는 중진의원들과 《태극기세력》과 같은 인물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 조선의원들사이의 대립이 팽팽하다고 한다.

또 《국민의당》과의 조속한 통합을 주장하는 당대표 권한대행과당이 《쇄신》을 하면 그들이 절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의 대립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한편 《국민의당》내에서

는 국우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의 통합을 결사반대하는 전라도지역 당원들과 보수통합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할것을 요구하고있는 경상도지역 당원들사이의 의견차질이 격렬하다고 한다.

얼마전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경기도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라는것을 벌여 놓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찬성과 반대, 조건부찬성과 등으로 갈라져 조속한 통합을 매듭짓기 참 힘들었다고 한다.

서로가 내부갈등으로 혼란만 겪고있을 때 보수통합은 고사하고 당들이 먼저 붕괴될 형편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사이의 통합론이 추진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야권추진단일화와 4.7개보충선거를 계기로 통합의 풍선을 불이 띄웠으나 개보충선거의 여운이 가시고 각자 대선생명을 드러내면서 바람이 빠지는 분위기다.》라고 평하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사이의 합당론자가 진행되고있지만 리해관계가 얽히면서 속도가 붙지 않고있다.

이런 상황에 금대섭 전 의원의 원발 신당창당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야권재편구도는 더욱 복잡해지고있다.》고 전하였다.

아무리한 리명적공통성도 없는 시정배들이 권력에 군침을 흘리며 세력권쟁탈에 눈이 빨개 돌아치고있어 보수세력은 통합이 아니라 사분오열되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흐지부지되어가는 《합당》놀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보충선거때부터 합당놀음을 벌여왔다는것은 다

자신들이 《국민의당》을 흡수할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

《국민의힘》 당대표인한 대평과는 합당할 의사가 없는지 《국민의당》이 확인해 서 담이 오면 될것이다. 우리는 찬성한다고 했으니 저쪽 결과에 따르는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에 공을 넘겼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합당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추후에는 《중도》, 《실용》 등의 방향성이 있어야 하고 혁신과 공정, 개혁이 전제로 되는 합당이어야 한다는 조건부찬성을 제

기하면서 합당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립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흡수통합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국민의힘》의 위상정당이 아니라고 뻔치고있다고 한다.

그에 대해 남조선언론 《연합뉴스》는 《바람빠지지는 않겠지만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 확인해 서 담이 오면 될것이다. 우리는 찬성한다고 했으니 저쪽 결과에 따르는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에 공을 넘겼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합당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추후에는 《중도》, 《실용》 등의 방향성이 있어야 하고 혁신과 공정, 개혁이 전제로 되는 합당이어야 한다는 조건부찬성을 제

않으려면 저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로골적인 회유에 나서고있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의 정계에서 전 《국회》의원 금대섭이 윤석열을 끌어들이 새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떠들고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보수단체가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윤석열을 둘러싼 보수세력들의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지금 정치권은 금대섭 전 의원과 김종인, 윤석열이 함께 하는 제3인당이 만들어질지 주목하고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사이의 합당론자가 진행되고있지만 리해관계가 얽히면서 속도가 붙지 않고있다.

이런 상황에 금대섭 전 의원의 원발 신당창당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야권재편구도는 더욱 복잡해지고있다.》고 전하였다.

아무리한 리명적공통성도 없는 시정배들이 권력에 군침을 흘리며 세력권쟁탈에 눈이 빨개 돌아치고있어 보수세력은 통합이 아니라 사분오열되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살인마들의 낮간지러운 추대

《안타까운 회생》이니 떠벌이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만극을 연출하였던것이다.

《세월》호참사 7주기 기억식에 천연스레 참가하여 《《세월》호의 아픔》이니,

《살인마들의 낮간지러운 추대》

《안타까운 회생》이니 떠벌이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만극을 연출하였던것이다.

《세월》호참사 7주기 기억식에 천연스레 참가하여 《《세월》호의 아픔》이니,

《살인마들의 낮간지러운 추대》

《안타까운 회생》이니 떠벌이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만극을 연출하였던것이다.

《세월》호참사 7주기 기억식에 천연스레 참가하여 《《세월》호의 아픔》이니,

《살인마들의 낮간지러운 추대》

은 부모들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옳당한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신인 《세우리당》패거리들은 아이들을 살려내라,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불순세력》, 《정치선동군》으로 매도하며 중무장한 폭압경찰을 내몰아 탄압하다 못해 그들을 《시체장사군》이라고 모독하기까지 하였다.

《살인마들의 낮간지러운 추대》

《안타까운 회생》이니 떠벌이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만극을 연출하였던것이다.

《세월》호참사 7주기 기억식에 천연스레 참가하여 《《세월》호의 아픔》이니,

《살인마들의 낮간지러운 추대》

《안타까운 회생》이니 떠벌이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만극을 연출하였던것이다.

《세월》호참사 7주기 기억식에 천연스레 참가하여 《《세월》호의 아픔》이니,

《살인마들의 낮간지러운 추대》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단식통성을 하는 유가족들앞에서 먹자판을 벌려놓고 《제대로 단식했으면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왜 살아있는가.》, 《보상금을 타먹기 위한 연극이다.》는 악담까지 퍼부은 자들이 아직도 《국민의힘》패거리들속에 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희화적이고 찰떡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날리고 진짜 진이 나게 우려먹는다.》, 《자식팔아 생계를 챙겼다.》, 《그만 우려먹으라》고 췌하던 초보적인 인물도덕도 모르고 인간의 정상적인 사유능력과 감성마저 강고리 상



비료 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린다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

공화국의 골지의 화학공업 지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높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공업을 지켜왔다는 자각을 안고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진군길에서 중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는 이곳 기업소를 찾았다.

우리와 만년 안영철기사는 질소비료생산을 위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어 일별, 월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다음해 질소비료생산을 위한 대보수준비도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고 말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비료종합조작실에 들렀다. 이곳에서는 조작공들이 설비들의 상태에 맞게 조작을 능숙하게 해나가는 한편 현장안전공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곳 기업소에서는 비료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과학자, 기술자들이 아닌 모든 생산자대중이 창조적혜를 합쳐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방방본본히 밀고나가고있다고 한다. 직장별로 기술혁신책상안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경훈책임기사는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생산자대중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니 가치있는 안들이 많이 나오고있다. 얼마전에는 암모니아생산공정에서 유량수감할 수 있는 유량수감부

를 새롭게 제작도입하여 은을 내고있다. 또한 상사식이던 류량조작계를 수자식으로 새롭게 제작하고있는데이 장치가 도입되면 암모니아생산공정과 노스비료생산공정을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기업소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여러

화학제품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있었다.

폴리프로필렌직장에서는 촉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는 한편 국내 원료에 의거한 촉매생산공정과 기술을 더욱 완벽하여 제품의 다중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있었다.

중산의 동음은 수지마대직장에서도 힘있게 울리고있었다. 이곳 직장의 종업원들은



본사기자 리철민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고려약제 품들

— 평천고려약공장에서 —

공화국의 평천고려약공장에서 선진적인 생물공학기술과 약제기술, 전통적인 고려약학도법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여러가지 고려약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첫산발효용액체종균 《광명》은 일종의 균을 첫산발효용액체종균으로 새롭게 제조하여 병치료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만든 특이한 제품이다.

《광명》균은 외상치료, 중독성질병, 계양성질병 등의 치료에 리용되며 특히 화상, 창상, 동상, 식중독, 알콜중

독, 중독성부염치료에서 다른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도 빠른 시일안에 완쾌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다.

원료로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자체의 힘과 기술, 국내의 자원에 의거한 특색있는 뇌혈전, 뇌진탕과 그 후유증, 심근장애, 기억력감퇴, 잠장애, 가스중독으로 인한 머리아픔 등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하여 특허증서를 받았다.

단나무열매를 주원료로 하는 단나무열매정액은 높아진 피속지질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동맥경화증과 고지

혈증, 고혈압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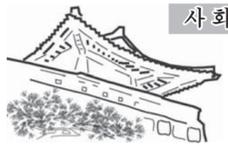
단나무열매정액은 정신안정작용, 항로화작용 등이 있어 잠이 잘 오게 하고 육체적피로감을 덜어주며 몸의 저항력을 높여줄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고려약들을 더 많이, 더 질종제 생산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고구려화가 담징 (4)

글 리성덕, 그림 김윤일

하늘의 해도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금당안은 텅 빈듯, 바람도 드나들기를 주저하는듯 고요하구나 했다.

들리는것은 새의 지저귂과 간혹 나무잎을 스치고 지나며 소곤거리는 바람소리뿐! 우리를 안은듯한 침묵, 신비하지만 고요한 정적이 계속되고있었다.

어느덧 밤, 어느덧 새벽, 어느덧 또 아침... 금빛해미이 금당벽을 어루만져주고있었다.

법정은 이슬에 적적해진 가사자락을 어미며 금당안의 동정을 살피보았다. 이때 금당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벽면을 향해 돌아서있는 담징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담징이 변화를 그렸다.》

어느 사이에 소문을 들었는지 범부사 주지가 왔다. 뒤미처 왜승들도 하나, 둘 숨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금당으로 모여들었다.

주지가 금당 들게탄에 천천히 올라섰다. 그때까지 등 초롱을 들고 그림이 서있

던 법정은 주지에게 두손을 마주잡아 레의를 표시하고 금당안으로 안내했다.

담징은 사람들이 들어서는 줄도 모르고 금당바닥에 뿌려내린듯이 장대한 체구를 까딱도 않고 서쪽벽면을 향해 서있었다.

얼굴은 종이상처럼 창백한데 옷자락과 손에는 몇점의 채색이 묻어있었다.

금당바닥에도 역시 점점이 채색이 떨어져 꽃뿔기를 이루고있었다.

아직도 담징의 모든 정신력은 저 알지 못할 법 세계에 서 떠도는듯 눈빛은 황홀하게 물라는데 눈앞같이 창백한 얼굴에선 청명한 기운마저 풍기고있었다.

《아! 과연 명화로서나!》
《아, 과연 명화로서나!》
《아, 과연 명화로서나!》

《아, 과연 명화로서나!》
《아, 과연 명화로서나!》
《아, 과연 명화로서나!》

부처(아미타여래)가 량꽃방석위에 앉아있고 그 량옆에

대칭으로 서있는 판세음과 대치 두 보살.

화려한 벽면의 공간에는 무수한 연꽃송이들이 바람에 날리는듯 가볍게 떠돌아 그 옥한 향기마저 풍기는듯...

부처의 부드럽고 근엄한 얼굴표정, 아름답고 고결한 인상의 두 보살상! 입김으로 불어도 금시 하늘하늘 날릴 듯싶은 얇은 옷자락, 그림에서 살아 숨쉬는듯 한 생동한 육체의 모습...

《아!》
누군가 금방 들어선듯 저 뒤쪽에서 또다시 탄성이 들려왔다.

풀색, 하늘색, 붉은 감색, 채색을 기본으로 하는 선명한 채색이 진한가 하면 어느덧 연한듯도 하고 두꺼운가 하여 보면 어느덧 투명한듯도 한 조화를 이루면서 화폭을 웅건한 세계로 이끌어간것이다.

합차게 오고간 붉고 검은 색의 선에서는 고구려남자의 씩씩한 기상이 그대로 느껴지는가 하면 부드럽고 선명한 색조에는 수려한 고구려풍토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혈압을 내리게 하는 자극로법

고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침혈은 용천혈이다. 용천혈은 뇌졸중발작후 기승회복에도 효과가 큰 침혈 중의 하나이다.

용천혈의 위치는 발바닥길이를 세등분한 앞부위선의 중심에 해당한다. 즉 발바닥앞쪽에서 1/3과 뒤쪽에서 2/3가 교차되는 곳이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나이의 사람들이 용천혈을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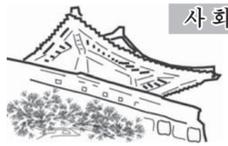
하면 좋다. 한번에 좌우의 발을 각각 100번정도 하는것이 좋다. 방법은 나무망치 같은것으로 다소 강하게 기분이 좋을 정도로 두드린다.

이런 자극은 온몸의 피 흐름을 좋게 하고 뇌졸중예방과 후유증으로 인한 팔다리마비를 개선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 나무망치가 없을 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

정도 누른다. 이것을 각각 30분정도 한다. 용천혈을 두드린 다음에는 발바닥전면을 두드려주면 더욱 좋다.

자극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와 잠자기 전에 해야 한다. 이 자극법을 인내성있게 1년간 계속하면 어떤 고혈압도 반드시 효과를 볼수 있다.

본사기자



고구려화가 담징 (4)

글 리성덕, 그림 김윤일

하늘의 해도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금당안은 텅 빈듯, 바람도 드나들기를 주저하는듯 고요하구나 했다.

들리는것은 새의 지저귂과 간혹 나무잎을 스치고 지나며 소곤거리는 바람소리뿐! 우리를 안은듯한 침묵, 신비하지만 고요한 정적이 계속되고있었다.

어느덧 밤, 어느덧 새벽, 어느덧 또 아침... 금빛해미이 금당벽을 어루만져주고있었다.

법정은 이슬에 적적해진 가사자락을 어미며 금당안의 동정을 살피보았다. 이때 금당문이 소리없이 열렸다.

벽면을 향해 돌아서있는 담징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담징이 변화를 그렸다.》

어느 사이에 소문을 들었는지 범부사 주지가 왔다. 뒤미처 왜승들도 하나, 둘 숨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금당으로 모여들었다.

주지가 금당 들게탄에 천천히 올라섰다. 그때까지 등 초롱을 들고 그림이 서있

던 법정은 주지에게 두손을 마주잡아 레의를 표시하고 금당안으로 안내했다.

담징은 사람들이 들어서는 줄도 모르고 금당바닥에 뿌려내린듯이 장대한 체구를 까딱도 않고 서쪽벽면을 향해 서있었다.

얼굴은 종이상처럼 창백한데 옷자락과 손에는 몇점의 채색이 묻어있었다.

금당바닥에도 역시 점점이 채색이 떨어져 꽃뿔기를 이루고있었다.

아직도 담징의 모든 정신력은 저 알지 못할 법 세계에 서 떠도는듯 눈빛은 황홀하게 물라는데 눈앞같이 창백한 얼굴에선 청명한 기운마저 풍기고있었다.

《아! 과연 명화로서나!》
《아, 과연 명화로서나!》
《아, 과연 명화로서나!》

《아, 과연 명화로서나!》
《아, 과연 명화로서나!》
《아, 과연 명화로서나!》

부처(아미타여래)가 량꽃방석위에 앉아있고 그 량옆에

대칭으로 서있는 판세음과 대치 두 보살.

화려한 벽면의 공간에는 무수한 연꽃송이들이 바람에 날리는듯 가볍게 떠돌아 그 옥한 향기마저 풍기는듯...

부처의 부드럽고 근엄한 얼굴표정, 아름답고 고결한 인상의 두 보살상! 입김으로 불어도 금시 하늘하늘 날릴 듯싶은 얇은 옷자락, 그림에서 살아 숨쉬는듯 한 생동한 육체의 모습...

《아!》
누군가 금방 들어선듯 저 뒤쪽에서 또다시 탄성이 들려왔다.

풀색, 하늘색, 붉은 감색, 채색을 기본으로 하는 선명한 채색이 진한가 하면 어느덧 연한듯도 하고 두꺼운가 하여 보면 어느덧 투명한듯도 한 조화를 이루면서 화폭을 웅건한 세계로 이끌어간것이다.

합차게 오고간 붉고 검은 색의 선에서는 고구려남자의 씩씩한 기상이 그대로 느껴지는가 하면 부드럽고 선명한 색조에는 수려한 고구려풍토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한번에 좌우의 발을 각각 100번정도 하는것이 좋다. 방법은 나무망치 같은것으로 다소 강하게 기분이 좋을 정도로 두드린다.

이런 자극은 온몸의 피 흐름을 좋게 하고 뇌졸중예방과 후유증으로 인한 팔다리마비를 개선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 나무망치가 없을 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

정도 누른다. 이것을 각각 30분정도 한다. 용천혈을 두드린 다음에는 발바닥전면을 두드려주면 더욱 좋다.

자극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와 잠자기 전에 해야 한다. 이 자극법을 인내성있게 1년간 계속하면 어떤 고혈압도 반드시 효과를 볼수 있다.

《아!》
누군가 금방 들어선듯 저 뒤쪽에서 또다시 탄성이 들려왔다.

풀색, 하늘색, 붉은 감색, 채색을 기본으로 하는 선명한 채색이 진한가 하면 어느덧 연한듯도 하고 두꺼운가 하여 보면 어느덧 투명한듯도 한 조화를 이루면서 화폭을 웅건한 세계로 이끌어간것이다.

합차게 오고간 붉고 검은 색의 선에서는 고구려남자의 씩씩한 기상이 그대로 느껴지는가 하면 부드럽고 선명한 색조에는 수려한 고구려풍토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아!》
누군가 금방 들어선듯 저 뒤쪽에서 또다시 탄성이 들려왔다.

부처(아미타여래)가 량꽃방석위에 앉아있고 그 량옆에

한번에 좌우의 발을 각각 100번정도 하는것이 좋다. 방법은 나무망치 같은것으로 다소 강하게 기분이 좋을 정도로 두드린다.

이런 자극은 온몸의 피 흐름을 좋게 하고 뇌졸중예방과 후유증으로 인한 팔다리마비를 개선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 나무망치가 없을 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

정도 누른다. 이것을 각각 30분정도 한다. 용천혈을 두드린 다음에는 발바닥전면을 두드려주면 더욱 좋다.

자극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와 잠자기 전에 해야 한다. 이 자극법을 인내성있게 1년간 계속하면 어떤 고혈압도 반드시 효과를 볼수 있다.

《아!》
누군가 금방 들어선듯 저 뒤쪽에서 또다시 탄성이 들려왔다.

풀색, 하늘색, 붉은 감색, 채색을 기본으로 하는 선명한 채색이 진한가 하면 어느덧 연한듯도 하고 두꺼운가 하여 보면 어느덧 투명한듯도 한 조화를 이루면서 화폭을 웅건한 세계로 이끌어간것이다.

합차게 오고간 붉고 검은 색의 선에서는 고구려남자의 씩씩한 기상이 그대로 느껴지는가 하면 부드럽고 선명한 색조에는 수려한 고구려풍토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아!》
누군가 금방 들어선듯 저 뒤쪽에서 또다시 탄성이 들려왔다.

부처(아미타여래)가 량꽃방석위에 앉아있고 그 량옆에

한번에 좌우의 발을 각각 100번정도 하는것이 좋다. 방법은 나무망치 같은것으로 다소 강하게 기분이 좋을 정도로 두드린다.

이런 자극은 온몸의 피 흐름을 좋게 하고 뇌졸중예방과 후유증으로 인한 팔다리마비를 개선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다. 나무망치가 없을 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

정도 누른다. 이것을 각각 30분정도 한다. 용천혈을 두드린 다음에는 발바닥전면을 두드려주면 더욱 좋다.

자극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와 잠자기 전에 해야 한다. 이 자극법을 인내성있게 1년간 계속하면 어떤 고혈압도 반드시 효과를 볼수 있다.

《아!》
누군가 금방 들어선듯 저 뒤쪽에서 또다시 탄성이 들려왔다.

풀색, 하늘색, 붉은 감색, 채색을 기본으로 하는 선명한 채색이 진한가 하면 어느덧 연한듯도 하고 두꺼운가 하여 보면 어느덧 투명한듯도 한 조화를 이루면서 화폭을 웅건한 세계로 이끌어간것이다.

합차게 오고간 붉고 검은 색의 선에서는 고구려남자의 씩씩한 기상이 그대로 느껴지는가 하면 부드럽고 선명한 색조에는 수려한 고구려풍토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아!》
누군가 금방 들어선듯 저 뒤쪽에서 또다시 탄성이 들려왔다.

부처(아미타여래)가 량꽃방석위에 앉아있고 그 량옆에



갈고

바라

갈고와 바라

갈고는 장고와 같이 사가 오랜 악기이지만 15세기 경부터 주로 중중악에서 향

악에 사용하였고 민간에서는 갈고와 같이 광범히 리용되지 않았다.

갈고는 오른손에만 채를 쥐고 연주하는 장고와 달리 양손에 다 채를 쥐고 연주하는것이 특징이다.

◆바라는 금속제악기의 하나로서 그 크기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다.

바라는 주로 농악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춤에서 소도구로도 리용되었다.

본사기자

작년봄에 본 사슴

사냥군이 사슴을 찾아 산 판을 헤매고있었다.

이때 한 나무꾼아이가 그에게 가만히 다가오더니 속삭이듯 《사슴이 저기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사냥군이 나무꾼아이가 가리켜준 곳

파 함께 주물러주면서 씻어 쓴맛을 우린다. 마늘은 다진다.

쓴맛을 우린 도라지에 고추기름, 다진 마늘, 사탕가루, 식초, 깨가루, 소금을 두고 고루 무친다.

이렇게 하면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도라지나물이 완성된다.

본사기자



본사기자